

달라진 청와대, 삼성-SK-LG 최고위직 비공개 조찬회동

김수현-김상조, '재계 빅3' 만나 기업 고충 들었다

〈청와대 정책실장〉

〈공정거래위원장〉

〈윤부근-김준-권영수〉

김광두 부의장 주선 회동 마련
지난달 27일 비공개 조찬 진행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7일 플라자호텔에서 대기업 CEO 등 주요 임원들과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3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김 정책실장은 김광두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부의장 주선으로 지난해 말 삼성과 SK, LG 총괄부회장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재계에 따르면, 김 정책실장과 김 위원장이 만난 대기업 임원들은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과 권영수 LG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이다.

당시 회동은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는 자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책실장과 김 위원장 등 '현 정권 경제통'들이 대기업 임원들과 비공식 회동을 진행하자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그중 현 정권이 집권 3년 차를 맞이해 경제 분야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왼쪽 첫번째)이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운영한 국민소통수석비서관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기업과의 소통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게 중론이다.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최한 신년회 때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 경제발전은 기업 투자에서 나온다.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다.

나아가 '청와대와 재계 관계가 해를 거듭할수록 두터워졌다'는 해석이다. 청와대 관계자와 대기업 임원간 비공개 만남이 지난 2017년 12월 중순 때 불발된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김현철 경제보좌관은 '8대 그룹 핵심 경영자(삼성·현대차·SK·LG·롯데·한화·포스코·GS)'들과 비공개 만찬을 진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

권영수
LG 부회장

행하기로 했으나 언론에 알려지는 부담감 때문에 만남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 임원을 비롯한 기업인들과 청와대의 만남은 향후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김 정책실장과 대기업 임원이 만난 것은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이라며 "(향후) 기업인들과의 대화는 계속 이어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를 뒷받침하듯 문 대통령은 이달 중순 대기업과 중견기업, 지방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인 간담회를 추진 중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같은날 "이달

중순쯤 주요 경제인들과 대통령의 간담회를 추진 중"이라며 "오는 7일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벤처기업 등 관계자 200명(청와대로) 초청해 대통령과 만나는 일정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기업인들과의 만남은) 대통령 신년사의 연장선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국내 경제 활력을 찾고 현 정부의 정책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성격의 만남으로 이해하면 된다"고도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정권 발목잡는 경제 성적표에... 일자리 창출 '광폭행보'

文대통령 경제행보 가속화

현장 방문하며 경제 개선 의지 피력
국정운영 '긍정'·경제 정책 '부정'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외부 일정으로 3일 '스타트업계 현장'과 '수제화 제작 현장'을 찾자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문 대통령이 집권 3년 차를 맞이해 경제 행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소재 '메이커 스페이스(MS)'를 방문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창업이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혁신적인 창업을 통해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스타트업계가) 우리 경제의 큰 활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정부는 창의력을 가진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경제 분야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최한 신년사를 통해서도 경제 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서울 성동구 성수 수제화 희망플랫폼을 방문해 정원오 성동구청장, 유홍식 드림제화 대표에게 희망플랫폼 1층 소품에 전시된 수제화에 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성화를 위한 의지를 피력했다. '경제' 단어를 25번 언급한 것이다. 이는 3년에 그친 지난해 신년사와 비교하면 8배 넘게 많이 언급된 것이다.

이쯤되자 '부정적인 경제 성적표'가 골자인 신년 여론조사가 문 대통령 최근 행

보에 한 몫 했다는 목소리가 정계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됐다.

실제 KBS는 지난 1일 신년 여론조사를 발표했고, 응답자 절반 이상은 현 정부 국정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진단했다.

KBS에 따르면 자영업 종사자의 41.6%는 현 정부 경제 성과에 대해 "전혀 성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이는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불만을 나타낸 수치다.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응

답자 39.6%는 "정책 방향 자체가 수정돼야 한다"고 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는 KBS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 신년 여론조사(95% 신뢰 수준·표본오차 ±3.1%p·응답률 12.9%)'를 실시했다.

그런데 흥행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스타트업계 현장을 방문한 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문 대통령 신년사 요지는 '첫째도 민생경제, 둘째도 민생경제'였다"며 "우리 민주당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용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은 이날 메트로신문과의 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부터 경제 분야 일정으로 바뀐 것은 이유가 있다"며 "현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각종 신년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며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불안감이 가득한 여론의 시선을 바꾸려면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나가 시장 스킨십에 주력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우승준 기자

아이디어만 있으면 3D 프린트로 제품 생산... 디지털 대장간

메이커 스페이스는 어떤 곳?

창업지원공간으로 우수 아이디어 발굴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첫 외부 행보로 3일 방문한 '메이커 스페이스(Maker Space)'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개인이 아이디어만 갖고도 공공에게 개방하는 3D프린터, 레이저 가공기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완제품을 만들어 상품화를 돕는 창업지원공간을 말한다. 일명 '공공 디지털 대장

간'으로도 불린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235억원을 투입해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 65곳을 구축했다.

정부는 올해에도 60여 곳을 추가로 조성하는 등 2022년까지 전국에 총 350여 개의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국내 메이커 스페이스는 일반형(일반랩)과 전문형(전문랩)으로 구분돼 있다.

우수 아이디어 발굴에서 시제품 제작·양산까지 일괄 지원하는 엔피프린(N

15), 서울 금천구 산업단지 등을 기반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연계한 청년 제조창업과 기업의 제조혁신을 촉진하는 서울산업진흥원, 호남과 제주권에서 전문 메이커 시제품 제작을 통한 사업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남대 산학협력단 등이 지난해 선정된 전문랩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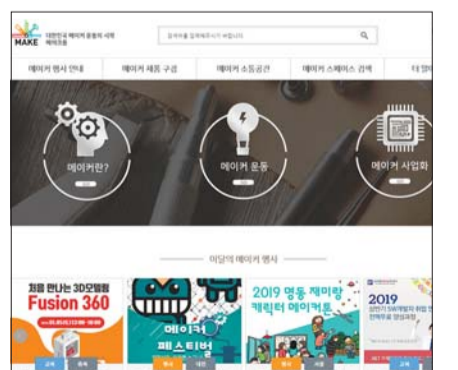
이들은 시제품 제작부터 양산까지 일괄적으로 지원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조창업 인프라를 보완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나 창업보육센터, 테크노파크(TP) 등 기존 창업 인프라와 연계·협업해

사업화를 돕는다.

일반랩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메이커 입문 교육, 창작 활동 체험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메이커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로봇 특화 메이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로보티즈 ▲플라스틱 업사이클을 중심으로 한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하시하 주식회사 ▲과학, 기술, 예술분야 메이커 활동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릴리움 ▲서울 흥대 지역의 장점을 활용한 디자인 중심의 3D프린팅 창작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글룩 등이 지난해 선정된 일반랩들이다.

정부는 앞으로 지역 특성을 기반으로



메이커 스페이스 홈페이지(www.makeall.com) 갈무리.

하는 메이커 스페이스별 기능 특화와 권역·분야별 스페이스간 연계도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bada@